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기호



시국이 시국인자라 요즘엔 점심식사 때마다 전쟁 이야기가 화두에 오르내린다. 어떤 신문의 논설위원이라도 사람은 우리의 공군 전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사흘만 참아주면 전쟁을 쉽게 끌 수 있을 거라는 요지로 글을 쓰기도 했다.

그런 비상식적인 확신(확신하는 자들은 당연히 고민이 없다)이 버젓이 신문지 상에 오르내린 만큼, 이즈음의 상황은 다분히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6·25 트라우마를 하나둘씩 꺼내, 다시 현재에 대입하고 있다.

대부분 보도연맹이니, 좌우의 사이 벌어진 피의 보복극에 대한 기억이었다. 이 형, 이 형도 지난번 시국선언 때 서명하지 않았나? 그러면 100% 좌으로 물리겠네. 전쟁 나면 어디 살아남았어? 에이, 어디 그런 일까지야. 웃으면서 말을 받았지만, 전쟁이라는 비이성적인 공간이 불러올 예측불허의 사태에 대해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걸 나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더 쓸쓸해졌다.

예전에 비해, 우리사회가 외면적으로 보다 이성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접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

과학이 먹히지 않는 이유

크면 커지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무조건 안 된다. 설령 사흘 만에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그것이 몰고 올 여파는 무시무시한 공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아래크나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보아 알고 있다.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쟁 중인 상황들, 그 안에서 최고권력자들을 뱉나며 국민들은 오로지 고통만을 강요당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국가 간의 전쟁이 갖고 있는 진짜 본질이다. 사흘만 참아달라는 '참아달라는' 어휘 속에 내장된 아무렇지도 않은 헌신 강요 같은 것들.

그래서 이즈음의 상황이 더 답답하게 느껴진다. 전쟁이 밟밟하는 계기들이란, 대부분 우연적이고 국지적인 충돌들 때문이다(세계대전의 시작은 언제나 누군가가 발사한 총 한 발 때문에 비롯되었다). 그런 우연과 충돌을 제어해주고 예방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용받은 자들의 뜬금한 태도, 작금의 모습은 어쩐지 그 반대의 경우로만 가고 있는 모양새다. 제어와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군 수뇌부들은 당당하고, 정부와 여당은 발 벗고 나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전선 자체의 경계가 명확히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그 피해가 더

느껴진다. 전쟁이 밟밟하는 계기들이란, 대부분 우연적이고 국지적인 충돌들 때문이다(세계대전의 시작은 언제나 누군가가 발사한 총 한 발 때문에 비롯되었다). 그런 우연과 충돌을 제어해주고 예방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용받은 자들의 뜬금한 태도, 작금의 모습은 어쩐지 그 반대의 경우로만 가고 있는 모양새다. 제어와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군 수뇌부들은 당당하고, 정부와 여당은 발 벗고 나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전선 자체의 경계가 명확히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그 피해가 더

각 군 수뇌부를 교체하고 사건을 조사했다면 지금 같은 불신에 시달리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조사 발표 시점을 지방 선거 이후로 미루었다면, 그 신빙성은 더 높아졌을 것이다.(이건 너무 속이 뻔해 보이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하길 못했고, 그래서 불신을 스스로 자초했다. 더불어 이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왔던 '발 뒤집기'의 사례들이 겹쳐, 불신의 폭은 더 넓어지고 광범위해졌다. 그러니, 아무리 '과학'을 강조해도, '과학'이 먹히지 않는 것이다. 표 때문에 '세종시' 문제를 그렇게 뒤집었으니, 이번 역시 표 때문에 먹히지 않겠느냐. 이런 공식이 설득력 있게 통용되는 것이다.

어쨌든 이제 선거는 끝났다. 칼럼을 쓰고 있는 이 순간,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알 순 있지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선거 종료를 기점으로, 이 송곳 같은 긴장 상태가 다소 누그러지길, 그 마음 하나뿐이다. 어느 영화 제목처럼 불안은 영혼을 잡식하는 것이 맞다.

더불어 불안을 조장하는 권력들이란, 대부분 불신의 높이 빠져 있는 경우들도 있다. 영혼을 잡식당하지 않은 국민만이 권력을 을곧게 감시할 수 있는 법이다. 그것이 또한 권력자들만을 위한 전쟁을 막는, 유일한 국민의 길이기도 하다.

〈소설가·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주태승



두발이 사람의 인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헤어스타일을 상황에 맞추어 혹은 기분에 따라 연출한다. 그런데 만약 머리카락이 없다면 그건 사람들의 인상을 망치는 일종의 '재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들의 경우 탈모로 인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여러 설문조사를 보면 미혼여성들이 가장 결혼하기 싫은 상대로 대머리인 사람을 꼽

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대머리성향의 유전자가 있다고 모두가 대머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대머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와 형태는 다를 수 있다.

여러 원인 중 근래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여성탈모와 소아탈모의 주요한 원인으로 여겨진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업무, 가정생활, 육아 등 스트레스의 증가로 성인여성들의 탈모 가능성은 더욱 증가시키며 입시 등의 스트레스로 어린 학생

탈모치료 성공하려면

있으며, 취업이나 사업 혹은 진급 등에 서도 불이익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답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탈모로 인한 고민이 성인 남성뿐 아니라 어린 학생, 또 탈모에 있어서는 알아보고 생각되었던 젊은 여성들에게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다. 탈모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치료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진행을 늦추는 것도 가능하고 더 나가 머리카락이 늘어나는 것도 유도할 수 있다.

탈모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탈모치료의 시작은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탈모전문병원을 방문해 두피-모발진단기자를 이용해 모발의 굵기 및 개수, 각질의 상태, 피지 분비량, 두피의 색깔 및 혈관의 상태, 모낭의 모양, 염증 정도 등을 파악해야 한다. 모발미네랄검사를 통해 모발에 영향을 주는 영양소의 불균형이나 중금속의 체내 축적량을 정확히 알아내어 탈모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탈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전자의 원인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부모 혹은 친족 중에 대머리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도 대머리 성향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문치료료 못지 않게 환자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적극적인 치료로 극복할 수 있음을 환자 스스로 깊이 인식해야 한다. 〈월클리닉 대표원장〉

기고

장갑수



매년 6월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현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국민화합을 다짐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친 그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과 온 국민이 국가유공자들의 위국헌신에 감사하고 보답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광복된 지 65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대머리성향의 유전자가 있다고 모두가 대머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대머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와 형태는 다를 수 있다.

여러 원인 중 근래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여성탈모와 소아탈모의 주요한 원인으로 여겨진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업무, 가정생활, 육아 등 스트레스의 증가로 성인여성들의 탈모 가능성은 더욱 증가시키며 입시 등의 스트레스로 어린 학생

특히 광주지방보훈청에서는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보훈의 상징인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에 이어 나라사랑 공개수업 '나라사랑 아는 만큼 느껴요'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고 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한 나라사랑 큰

국가유공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라는 시간이 지났고 6·25전쟁이 밟밟한 지도 60년이 흘러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했던 일본제국주의의 만행과 6·25전쟁의 비극을 기억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제라도 우리 국민, 특히 젊은 세대에게 보훈의식을 함양토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기쁨을 전하고자 6월이 가기 전에 가까운 보훈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6월 첫째주 '주모의 기간', '감사의 기간', '화합과 단결의 기간'으로 나누어 기간별 특성에 맞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주모의 기간(6.1~6.10)에는 현충일 추념식과 현충탑 참배 등 각종 추모행사를 실시하고, 감사의 기간(6.11~6.20)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로·격려, 음악회 등 행사를 개최한다.

화합과 단결의 기간(6.21~6.30)에는 6·25전쟁 기념행사, 국군장병 위로·격려 행사 등을 통해 안보요원들의 사기와 진작시키는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문치료료 못지 않게 환자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적극적인 치료로 극복할 수 있음을 환자 스스로 깊이 인식해야 한다. 〈월클리닉 대표원장〉

늘어나는 가계빚... 개인파산 위험수위

가까운 지인 중에 빌딩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 늘 같은 반찬이지만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것도 힘겹고, 최근 후 벌어들이는 돈까지 합쳐 월평균 160만 원 정도 되는 수입만으로는 견뎌내기 벅차다. 거기다가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 지출이 많아지고 한 달 생활이

확 쪼그리든다. 이 때문에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빚은 늘어만 간다. 그런 생활을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개인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지금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서민들이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헤아려야 할 것이다. ▲유병양·광주시 동구 소태동

시설

정부·여당의 독선·독주 심판한 6·2선거

6·2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민의는 그 애말로 준엄했다. 한나라당 압승으로 예상했던 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선전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초 한나라당이 경남을 제외한 영남권과 수도권에서 쏙쓸이, 강원과 인천 등지에서 승리가 확실시됐으나 예상과 달리 서울과 인천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강원·충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민심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무난한 승리를 챙겼으나 만관에 '경제표'가 민주당에 쏠리면서 치열한 접전이 전개됐고, 한나라당의 덫발인 경남에서는 무소속 김斗만 후보가 막바지까지 선두 경쟁에 나서 최대의 이슈가 됐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정치, 사회적인 안정뿐 아니라 정부 여당의 독선과 독주에 대한 심판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0%에 이르고 전인국 회장을 빼어당기고 경북도지사에 당선된 이우현은 물론 국회의원과 관련한 북풍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참패한

光銀매각 지역경제 최우선 고려해야

지난 2001년 우리금융 자회사로 편입된 광주은행의 분리 매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은행 인수를 추진 중인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에 분리 매각을 촉구했다. 광주와 경남 등 지방은행 노동조합도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독자 분리매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역 상공인들이 광주은행을 인수하려면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광주은행 매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가 금융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우리금융 민영화 시기에서 대처한 공식적인 입장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 민영화 완료 시점이 연말을 넘길 수 있다"고 밝힌 것이 고작이다. 지난 2005년에도 지역 상공인들이 광주은행의 인수에 나섰으나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광주은행이 분리 매각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폭넓게 형성돼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준과 원칙 아래 광주은행의 분리 매각이 추진되어야 한다.

無等鼓

애플이 만든 아이폰의 기세가 무섭다. 20만 가입자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국내 출시 6개월 만에 70만 명에 유행했다. 아이폰이 출시된 세계 88개 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다.

더분에 본격적인 스마트 폰 시대가 열렸고, 무선인터넷 사용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산업생산이나 일자리 창출에도 엄청난 기여를 했다. 올해 1분기 소프트웨어 채용공고가 50%나 늘었다.

앞으로 3년간 관련 분야에서 2만 6600명의 일자리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분야에서 4조 9000억 원의 신규시장이 생길 것이다. 예측도 있다. 세계 IT업계는 격류에 휘말렸다. 이른바 '플랫폼(plat-form) 전쟁'이다. 어떤 서비스가 단발기에서 잘 구현되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경쟁이다. 업계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승강장(platform)을 먼저 만들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전쟁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시작됐다. 2일 투표로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새로 뽑혔다. 4년간 지역을 이끌 플랫폼의 토대다. 주민과 함께 새로운 지역 운영체계를 만들고 콘텐츠를 개발해 아이폰 같은 대박 신화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김주정 정치부장 jjnews@kwangju.co.kr

플랫폼 전쟁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국회·독립신문·배달언론〉 www.kwangju.co.kr

편집국내부	사 회 2 부	2200-692	경 영 지 원 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